

# 배우의 삶 던지고 재소자 포교하는 스님

## 영국 앙굴리말라 단체 이끄는 아잔 케마담모 스님

영국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교화시키는 단체가 있다. 바로 앙굴리말라(ANGULIMALA)다. 1985년 3월 설립된 단체로 영국 웨일스 지역을 비롯해 영국 감옥에 있는 1600여 불자 재소자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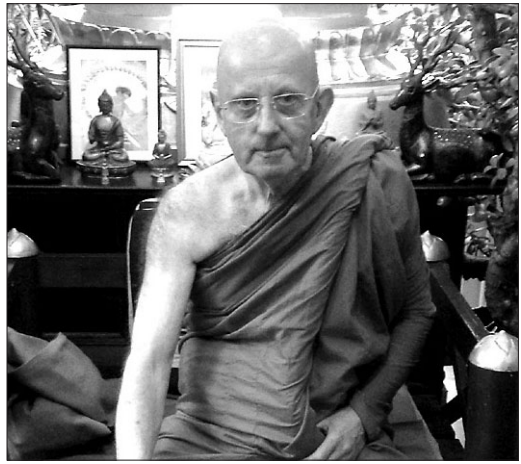
앙굴리말라를 이끄는 사람은 아잔 케마담모(Ajahn Khemadhammo) 스님이다. 한 때 연극배우였던 스님은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인 로렌스 올리비에(Laurence Olivier, 1907~1989)와 함께 연기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고 불교에 귀의해 영국 재소자들의 교화에 앞장서고 있다.

영국 허핑턴포스트(The Huffington Post UK)는 11월 25일(현지시간) 아잔 케마담모 스님과 인터뷰를 보도했다.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영국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가장 처음 귀의하는 종교가 불교이고, 불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며 “케마담모 스님의 헌신적인 공로는 재소자들이 미래지향적이고 다종교적인 시각을 갖게 했다. 그 결과 스님은 2003년 영국제국훈장(Order of the British Empire)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잔 케마담모 스님의 속명은 앨런 아담스(Alan Adams)다. 1944년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난 케마담모 스님은 성공회를 믿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독실한 어머니와 달리 종교에 회의적이었다. 스님은 “어릴 때 매주 일요일 두 번 교회를 가지만 했는데 정말 싫었다. 어느 날 길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교회를 나가지 못한 적이 있는데 해방감을 느꼈다”고 웃으며 말했다.

17세 때 드라마 스쿨(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에 입학하면서 스님은 기독교와 자연스레 멀어졌다. “한 2주 동안은 기독교적으로 살려고 필



영국 재소자 교화단체 앙굴리말라를 이끄는 아잔 케마담모 스님(사진 왼쪽)과 연극배우 시절의 스님 모습. 스님은 연극배우의 삶을 포기하고 재소자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 성공회 집안에서 자랐지만 기독교 신념체계에 회의 느껴 말라뿌따 경전 읽고 출가 결심

사적으로 노력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종교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ですよ.”

케마담모 스님은 셰익스피어와 안톤 체호프의 작품을 공연하면서, 그리고 배우들의 현실적인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엄격한 정신교육법을 전파한 스타니슬랍스키 이론을 습득하면서 불교 명상에 매료됐다.

“배우로 산다는 것은 명상적인 삶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배역을 맡게 되면 캐릭터의 마음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내 마음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젊은 시절 그는 평화와 행복을 꿈꾸는 보통사람들과는 달랐다. 기독교적인 신념도 거부했으며 행복해지기를 바라거나 무언가를 바라는 소망 같은 것도 없었다. 그의 ‘무엇을 바라는게 없음’의 마음은 그가 불자가 되는데 일조했다.

케마담모 스님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웹스테드 비하라 사원을 찾기로 시작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불교는 기독교와 달리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한 종교가 아니어서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어도 될 필요가 없어서 좋았다.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가. 난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이) 그저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을 믿는 것만 리스트로 활동하는 것, 더 나아가 말하는 것,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케마담모 스님은 로렌스 올리비에와의 만남도 회고 했다. 올리비에에는 영국 남부 브라이튼에서 하우스파티를 열었다. 당시 50대였던 올리비에에는 처음 케마담모 스님을 봤을 때 별로 좋은 인상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오계(五戒)를 지키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는 젊은 배우의 모습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파티 다음 날 저는 무대 문 옆에서 있었는데 로렌스 올리비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중파 방송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있었고, 친절히 저를 그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이후 올리비에와의 관계는 훨씬 더 좋아졌죠.”

올리비에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교적인 성찰은 연극 무대를 뛰쳐나오게 했다. 연극단장인 탈라뿌따(Talaputa)와 부처님이 연예인의 공덕에 대해 문답한 <탈라뿌따 경>을 접하면서다.

“부처님은 탈라뿌따에게 배우는 무대에서 애욕·성냄·어리석음의 폭류에 묶여 있는 중생들을 자각하는 것을 공연해 그들을 더욱더 애욕·성냄·어리석음에 빠지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문을 보고 관객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에 반성했습니다.”

극단을 나온 케마담모 스님은 2주간 안거 수행을 마치고 여행과 명상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스스로를 ‘파트타임 스님’이라 생각해 불만족스러웠던 케마담모 스님은 ‘풀타임 스님’이 되기 위해 27세가 되던 해 태국으로 떠났다.

1972년 태국에서 구족계를 받고 출가한 케마담모 스님은 아잔자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출가생활을 하다 1977년 영국으로 돌아와 불교명상 그룹을 만들고 포교활동을 펼쳤다. 1985년 3월 단체를 설립하고 에든버러, 피터헤드 등에 있는 교도소에 법당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재소자와 교도소 직원들을 만나고 있다.

스님을 따르는 불자 재소자는 1600여명, 자원봉사자는 50여 명 정도다. 봉사자들은 재소자들에게 법회와 명상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며, 교도소 내 모범사례를 공유해 법당 유지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케마담모 스님은 “부처님은 인간이 갈망하고 불만족하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하지만 재소자들은 가족과 자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 채 죄 값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해 삶에 희망을 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제2회 아시아 불교예술 성료

### 손타르 감독의 ‘Kung Fu Nuns’, 우수작 선정



아시아 불교예술제 ‘The Inner Path’에서 우수작으로 뽑힌 티베트의 손타르 갈(Sonthar Gyal) 감독의 ‘Sun Beaten Path’의 한 장면.

아시아 불교예술제 ‘The Inner Path’가 지난 11월 24일 ‘불교영화, 예술 그리고 철학 (Buddhist Film, Art & Philosophy)’를 주제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료됐다.

아시아불교영화진흥재단(NETPAC)의 주관으로 열린 ‘The Inner Path’는 지난 2012 인도에서 처음 열린 이래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올해 아시아 불교예술제에서는 티베트의 손타르 갈(Sonthar Gyal) 감독의 ‘Sun Beaten Path’, ‘Kung Fu Nuns’ 등 두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The Indian Express》는 “두 작품 가운데 여성의 출가와 수행 과정을 담은 작품 ‘Kung Fu Nuns’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고 전하고 “손타르 감독의 2011년작 ‘Kung Fu Nuns’에서 여주인공의 삶은 출가에 대한 동시대인의 편견을 허무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NETPAC의 아루나 바스데브(Aruna Vasudev)의장은 “손타르 감독은 불교의 전통과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탁월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Sun Beaten Path’와 ‘Kung Fu Nuns’의 우수작 선정 이유를 밝히고, “올해 아시아 불교예술제에서는 손타르 감독 작품 외에도 16편의 불교영화를 상영한 것은 물론 무대 공연, 토크쇼, 전시회 등이 마련돼, 아시아 불교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 아킨스키 닷산 스님, 미륵불 복원 한창

### 15미터 청동 미륵불, 바이칼 지역에서 최대 규모

러시아 바이칼 지역에 ‘미래 부처님’이 나타났다. 러시아의 한 스님이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며 훼손된 채 수장고에 묻혀 있던 미륵불 복원에 나서 화제다.



러시아의 한 스님이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며 훼손된 채 수장고에 묻혀있던 미륵불 복원에 나서 화제다.

《TASS》통신은 11월 25일 바이칼 지역의 타티아나 체렙초바(Tatiana Zherebtsova) 문화장관의 말을 인용, “아킨스키 닷산(Aginsky Datsan) 스님이 19세기에 조성된 후 2차 대전을 거치며 훼손된 채 수장고에 묻혀있던 미륵불을 복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칼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미륵불을 복원하고 있다”고 밝힌 아킨스키 닷산 스님은 “내년 3월까지 복원이 완료되면, 바이칼 지역을 대표하는 불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ASS》통신은 타티아나 문화장관의 말을 인용, “아킨스키 스님의 불상 복원에 소요되는 1백만 달러는 바이칼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킨스키 스님이 복원하고 있는 미륵불은 16미터 규모로 19세기 초 중국 장안에서 조성되어 바이칼로 이온된 것”이라며 “현재 스님

과 함께 5명의 바이칼 박물관 학예사들이 수장고에 보관된 미륵불 파편을 모으고 제자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실된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 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킨스키 스님은 복원과 함께 바이칼 지역의 불교 부흥을 알리는 법회를 봉안하는 한편,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 이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아킨스키 스님은 타티아나 문화장관과 봉원 장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거주증 없는 비구니 스님들 내 쫓겨져

### 중자치 당국, 티베트 비구니 단속 압박

티베트에 거주하는 비구니 스님들이 사찰 거주증이 없다는 이유로 내 쫓겨지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월 20일 “중국 자치 당국은 올해 들어 티베트 제2의 도시인 르카쩌(日喀則) 덩그리(定日)현에 있는 비구니 사찰 창루사(寺)에서 여승 100여명을 축출해 고향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보도했다.

인도로 망명한 한 10대 여승은 최근 RFA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이 수시로 사찰 거주증이 없는 비구니들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일반인 복장으로 같이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나취(那曲)지구 비루(比鲁)현에 있는 자다사에서도 여승 26명이 같은 이유로 축출되는 등 티베트 전역에

서 승려 추방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9월 비루현에선 사찰을 대상으로 평화 캠페인이 전개돼 신축 종교 건물들이 파괴되고 거주증이 없는 스님들이 대거 쫓겨난 것으로 밝혀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축출된 승려 가운데 상당수는 일정 기간 숲 속 등에서 숨어 지내다 단속 기간이 끝나면 해당 사찰로 돌아오거나 인도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베트 자치구 당국은 지난 2008년 베

이징 올림픽 개최 직전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유혈 시위가 발생한 후 티베트 불교 사찰들에 대한 중·개축을 금지하고 승려들에 대해 거주증 제도를 실시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티베트는 물론 중국 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역에선 수시로 반(反)중국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또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귀환 허용을 촉구하는 분신이 133건 발생했다.

이어나는 기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블로그인이라면 누구나 기iban

나만의 완성세계 기iban

기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기iban

성불할때까지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기iban

기iban

불교 신상과 만년, 신명만 내외의 만능입니다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www.hyunbulshop.com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